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E-mail : hc1260@hanmail.net
TEL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발 행 인 : 장효근

춘천성시신문

성 시 비 전
교회 갱신·부흥·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1998년 9월 15일 창간 | The Chuncheon Holycity Times | 제 125호 2009년 4월



INDEX

2 고난에서 배운 영성 - 신뢰와 기다림 -
4 · 5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말한다!
6 하나님과 세상을 탁월하게 섬기는 교회
8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



9 | 똑똑한 등신이 내몸을 살린다(II)



13 | 브루스 올미이티 (Bruce Almighty)



고난에서 배운 영성 – 신뢰와 기다림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때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동안 시대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한 신앙인들의 삶을 통하여 답을 찾고자 한다. 브래넌 매닝(Brennan Manning)은 「신뢰(ruthless trust)」라는 책(윤종석 옮김, 복있는사람)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 **그가 찾은 답은 '신뢰(ruthless trust)' 이다.**

신뢰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침없는 믿음의 길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거침없는 신뢰'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가 개인적으로 부딪친 현실과 다르지 않다. "원하는 바도 아니고 정당해 보이지도 않으며 뾰족한 설명이나 해결책도 없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무차별의 쓰라린 고뇌, 범세계적 혼란, 공포의 역사 앞에서 어떻게 감히 신뢰의 길을 제시할 것인가? 그들 안에 어찌해야 신뢰가 싹틀 것인가?"

긴 세월 기도와 묵상에 무수한 시간을 보낸 지금, 성령께서 불가피한 결론으로 인도하셨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며 맡기는 것,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한 절대적 신뢰이다."

웹스터 사전에 보면 '가차 없다(ruthless)'는 형용사가 '연민이 없다'로 정의되어 있다. 신뢰란 "자기 연민이 없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자기 연민은 신뢰의 대적인 까닭이다. 위기 속에서 사람은 자신 안으로 움츠러든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시간에 자기를 보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가차 없는 신뢰'의 삶을 산다면 신뢰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떻게 이런 신뢰의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인 것이다. 이것을 가봇(영광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개념으로 이해한다. 기독교가 단순히 윤리, 도덕규범, 인생철학이라면 고난의 습격을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봇에 대한 영광스런 체험은 우리로 거침없는 신뢰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신뢰의 길에 충실하면 우리도 욥이 도달한 자리에 이를 것이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신뢰)하리니"(욥13:15, KJV).

하지만 회의와 불안과 염려는 어떻게 되는가? 두려움의 그런 다양한 얼굴에 우리가 속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그것들은 전혀 겁낼 것이 못된다. "예수님, '내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은? 신뢰는 절망의 극한에서 시작될 때가 많다. 모든 수가 끊어질 때 우리 안에 신뢰가 싹튼다. 그리고 "아바여,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라는 순수한 외침이 심장에서 터져 나온다.

혹 신체적 흠, 지적 한계, 정서적 아픔, 영적 환부 때문에 좌절하는가? 자기 연민에 빠질 요소들이지만 오히려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부름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거침없는 신뢰의 삶은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한다. 온전히 현재에 사는 것이야 말로 영적 삶의 최고 기술일 것이다. 이 모두에서 나는 어디만큼 와 있을까? 당신과 함께 아침마다 손을 깍지 끼고 한목소리로 부르짖는다. "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신뢰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또 하나의 답은 **'기다림(When the Heart Waits)'** 이다.

이 「기다림」은 수 몽크 키드가 찾은 답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발달상의 전환기(중년의 위기와 같은), 외부 사건의 개입(사고나 질병 등), 내면의 반란이다. 원인은 다르지만 고통스러움은 같다. 그녀의 위기는 발달상의 전환기(중년의 위기)에 겪는 고통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 그녀가 고통 중에 발견한 구원의 은유이며 상징은 '잔가지에 매달린 고치'였다. 트리나 폴러스(Trina Paulus)의 「꽃들에게 희망을」(Hope for the Flowers)에 나오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깨달은 것이다. 그녀는 '잔가지에 매달린 고치'를 통해서 영적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이 스스로 고치 속으로 들어가서 나비가 되기를 기다리는 애벌레의 이미지이다. 그 고치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기다림'의 자리이고 생명의 자리라는 이해인 것이다.

우리에게 기다림을 당부하는 언어가 성경에 가득하다. "내가 종일 주를 바라(기다리)나이다"(시25:5).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시130:6).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합2:3).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8:25). 또 많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기다림이란 개념이 중요한 신앙의 모습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이란 개념은 희박하다. 참지 못한다. 속전속결 중독증이 있기 때문이다. 지름길 종교라고 해야 하나? 열매에만 관심이 있지 과정은 안중에도 없을 때, 기다림은 축복이 아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고통의 시간은 더욱 견디기 어렵다. 오히려 그때는 기다림의 때라, 멀지 않아 나비가 되는 소망을 품을 수 있을 때,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다.

기다림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분리, 변화, 출현이다. 구약에서도 애굽과 광야와 약속의 땅도 같은 구조가 아닌가? **위기는 분리의 기회다. 내려놓기가 있어야 된다.** 움켜진 것들을 놓아야 한다. 헨리 나우웬은 예수께서 잡히신 기사의 핵심단어를 '넘겨주다'로 보았다. 그의 지적대로 예수님은 그 넘겨진 사건을 통하여 수동 모드로 넘어가셨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일을 당하는 입장이 되셨다." 수동적으로 견디는 기다림의 경험이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수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넘겨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

다음은 변화의 단계이다. 빈데기를 짜기 시작할 때 애벌레는 복부 끝에 구상돌기라는 가시투성이의 작은 돌기를 만든다. 구상돌기는 고치 안에서 빈데기를 제자리에 붙어 있도록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지점은 중심 곧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고요한 핵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곳에서 기다림의 기도가 드려진다. 제라드 맨리 홉킨스의 시 한 구절, "그가 우리 안에 부활하게(easter)하라." 부활을 동사로 사용한 것이다. "그가 우리 안에 부활하게"하려면 우리의 어두운 기다림 속에 그리스도 생명을 부화해야 한다.

마지막 단계는 출현이다.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경이를 겪지만 나비는 바로 날지 못한다. 서투른 날갯짓이 있다. 서투른 모습이 당황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영혼의 선물들(즐거움, 긍휼 등)을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 고난의 어둠은 사라지고 주 안에서 그렇게 원하던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어둠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것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신뢰와 기다림은 고난주간과 부활을 앞에 놓고 묵상할 두 주제이다.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끌 수 있는 메시지이다.

[편집위원 고 재 만]

"500석 규모의 넓은 홀"
기분좋은 만남! 소중한 추억!
웨미리 뷔페
회갑연 고희연 돌/백일
각종모임 단체모임
출장뷔페 결혼식피로연 잔치음식
※돌잔치 각종 서비스 : 돌상차림, 케익, 돌잡이 이벤트, 돌잡이 용품 풍선장식, 원판사진, 압축앨범or액자, 포토테이블, 빔프로젝트 기타등등
예/약/문/의
☎(033)251-2154
☎(033)251-2158
찾아오시는 길 .....
웨미리뷔페 (1층우체국)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온 편지









제가 늘 자랑과 기쁨으로 여기는 춘천의 여러분들과 성시신문을 통해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일본에 온지 이제 3년.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는 오히려 저보다 일본을 더 많이 경험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더 많은 분들이 일본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사역하는 일들과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고시마에서 동경으로

예수전도단의 국제명칭은 Youth With A Mission(이하 YWAM)입니다. 저는 예수전도단 춘천지부를 섬기다가 2006년부터 일본으로 파송되어, 지금은 YWAM JAPAN 동경지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와서 처음 1년 반 가량은 큐슈 남쪽의 가고시마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지냈습니다. 인구가 적고 일본의 전통적인 면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 언어와 생활 등의 적응기간을 보내며 교회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말 이곳 동경으로 왔습니다. 동경은 국제적인 대도시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통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 계층, 다양한 사고방식과 문화가 있어 비교적 열려있는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일본 전통신앙을 고수하려는 영적인 견고함은 크게 변하지 않았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통신앙은 문화의 형태로 일반인들에게 더 가까이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일본 YWAM의 새로운 도약

일본 YWAM이 세워진지는 35년이 되었지만, 일본의 기독교 상황과 마찬가지로 사역자의 수나 사역의 규모가 아직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동경 베이스는 그동안 동경 외곽의 오메시에 베이스를 두고 사역해 오다가, 동경 시내의 한복판인 '시부야'를 중심으로 사역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2008년에 시내로 거처를 옮겨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동경 시내의 건물 임대료는 무척 비싸기 때문에, 재정적인 큰 대가지불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실이 마련될 때까지 아직은 한 선교사님의 집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과 전도를 위한 센터와 사무실을 겸해 쓸 수 있는 건물을 구입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는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이 시기에 맞춰 구입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대학 사역, 젊은 세대를 통한 일본의 복음화

동경 베이스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은 '대학사역' 입니다. 대학 사역은 캠퍼스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일본 사회의 각 계각층에 들어가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변화와 수용에 있어 유연하며, 열정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일본을 복음화 하는 데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대학교들은 한국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우선,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몇몇 학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학교 관계자 외 출입제한이 있어서 출입 시 방문목적 등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부인이 교내에서 전도하다가 학생들의 신고로 경비에 의해 바로 추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대학생들은 대부분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휴학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낸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높은 벽처럼 보이는 상황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인류, 친구 만들기

한류라는 말은 일본 젊은이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문화 교류 등을 통해 친구가 되고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작년 일본 총리가 2020년까지 현재의 12만명 가량의 유학생을 30만명으로 늘려 유치할 것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학마다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와 노력도 많이 합니다. 엔화가 비싸져서 본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들도 많아졌지만, 외국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늘리는 등 유학생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교에 열정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학생으로 와서 일본의 대학생과 친구가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것입니다.

교회와의 연합

연합은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합니다. 지역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젊은이들이 훈련되고 성장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마다 차이가 있어서 교류와 외부의 훈련에 대한 경계와 긴장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을 접한 젊은이들이 교회로 연결되고, 또 교회 청년들이 다른 교회의 훈련 프로그램이나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 배우고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본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물질주의, 외로움, 두려움, 고립은 일본 안에 있는 강한 영적 영향력입니다. 일본인뿐만 아니라 사역자들도 영적으로 깨어 싸워야 합니다. 사람들을 묶고 있는 이러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이 땅에서 높임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제목

* ✲ 하나님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역이 되도록
* ✲ 건강과 필요를 채우시도록
* ✲ 동역자와 후원자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 기도편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이선희 간사(070-7558-0135)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동경에서 심일한, 정해정 선교사(도현, 진현, 유리)

H&G 원어연구원 (Hebrew&Greek the Original Institute)

※ 히브리어 · 헬라어 학습 및 연구원생 모집 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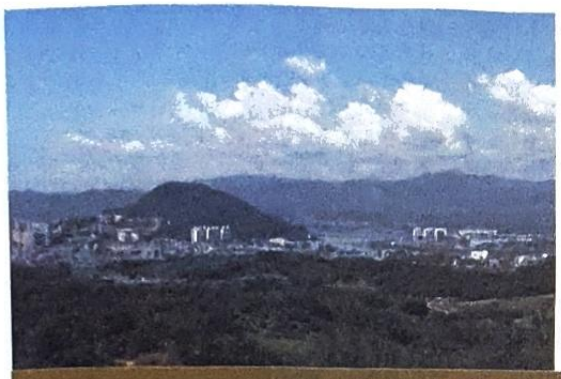
누구나 성경원문을 독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음과 같이 마련합니다.

A. 평신도반 : 남녀노소 학력 불문 누구나
습득과정 – 히브리어, 헬라어 기초부터 성경원문 독해까지, 1년~
B. 교역자반 : 중 · 고급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과정 – Parsing & Syntax, 1년~
C. 새성경번역반 : 가장 원문에 근접한 "100인 version" (코판버전) 진행 중
D. 장소 및 모임 : 한국복음주의신학교, 2009. 4. 27(월), 14:00
E. 문 의 : 033)441-1110, 010-9399-1944
033)242-2819,
한국복음주의신학교(춘천시 동면 만천리 555-1)

▷ 구태여,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의 문자를 사용하시어 성경을 기록해주신 그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성경을 독해하기 위한 코이노니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성경원어는 수천 방언 중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원초적 은혜의 선물이니, 오역(誤譯)과 의역의 비감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 자국어로만 성경을 읽으면
※ 각국어 번역은 문화적 시대적 차이로 "일점일획"이 불가한 번역으로 잔뿌리가 잘려, 원문을 찾아야하는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 자국어 성경의 편이주의(便易主義)는 언어 플레이를 낳으니, 좁은 길에서 찾는 큰 진리, 큰 기쁨에로 함께 뜻을 같이 합시다.

한국복음주의신학교부설 원 어 연 구 원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 전상기 목사 외)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말한다!

| 참여자: 김성호(기독교연합회 상임총무), 유영호(YMCA이사장), 이희수(YWCA회장)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정의'라는 주제로 선교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는 '복음전도와 사회정의'를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른바 '균형잡힌 기독교(The Balanced christianity)'가 강조되었다. 그리고 1989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로잔II대회에서는 '균형잡힌 기독교'를 좀 더 심화시킨 소위 '총체적 기독교(The Holistic christianity)'라는 선교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복음전도와 사회정의는 교회가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선교적 행위이다. 최근 김수환 추기경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반 국민들의 끝없이 이어지는 추모행렬은 복음전도와 사회정의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고자 했던 김수환 추기경의 삶은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과 감명을 준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3-16절) 세상에 밝히는 교회가 아니고 빛으로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선교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성취한 업적과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보자.

YMCA이사장, YWCA회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 유 영 호 (YMCA이사장, 유영호치과원장)

부족한 사람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셔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춘천 YMCA(기독교청년회)는 전임 이칭찬 이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외형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이러한 외형적 성장이 내실 있는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고 한다. 특히, 사명문에 명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신앙인들이"란 말처럼 **확고한 기독교신앙과 철학에 기초하여 세상과 시민을 향해 열린 운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 희 수 (YWCA회장, 도서출판 대희 대표)

지난 1월 취임 후 매우 바쁘게 지냈다. 춘천 YWCA(기독교여자청년회)는 초창기 지역교회의 관심과 헌신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회관을 건축할 때에도 중앙감리교회, 성광장로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건축헌금을 후원해 주셨다. 이러한 관심과 협력으로 지역을 섬기는 운동으로써 지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춘천 YWCA는 한국사회가 민주사회로 접어들던 80년대 후반 가장 역동적 시기를 보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운동으로 다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사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책임이다. YMCA와 YWCA의 사역을 소개한다면.

✲ 유 영 호

선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YMCA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춘고 High-YMCA의 초대회장과 전국 대학 Y의 부회장으로 섬기면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가지며 건전한 의식함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 YMCA운동은 기독교신앙과 정신에 바탕을 둔 질서와 조화를 추구하는 교회연합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여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운동**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춘천의 많은 교회들의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이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외치면서 정작 자신이 부조리의 원인제공자가 되면 안 된다. 세상을 정화시키기 전에 철저한 자기개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춘천을 거짓 없는 깨끗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품고 있다.

✲ 이 희 수

YWCA회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소통"이다. 일을 많이 하는 것 못지않게 **YWCA가 중심에 서서 교회와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소통이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이벤트성 프로젝트만 추진하다 보면 본래 목적을 상실하기가 쉽다.

소통을 위하여 "행복한 책읽기", "행복한 시읽기" 등을 계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 청소년 사역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일하는 여성의 57%는 실질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마도 위기 때 여성이 남성보다 강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예가 아닌가 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확대 운영하려 하며 상담강좌를 통해서 정신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에 주력하며 특별히 7월, 8월경 조손가정의 자녀들을 초청해 특별 프로그램을 가지려 한다.

교회와 사회선교단체 간에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효과적 협력방안은 무엇인가?

✲ 김 성 호 (기독교연합회 상임총무)

YMCA와 YWCA는 교회의 관심과 선교적 열심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고 단체이다. 초창기 춘천의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의 관심과 헌신,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YMCA와 YWCA는 뿌리를 내렸다. 초창기 YMCA가 뿌리내리도록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부친(YMCA이사장을 역임하신 고 김연호 목사님)의 영향과 개인적 High-YMCA 출신으로서 희망Y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기독교정신으로 인생관을 세워나갈 수 있었다. 또한 Y정신으로 사업을 하면서 청년Y를 후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와이즈맨 클럽은 교회가 사회선교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교회는 본질적 사명인 영혼구원에 충실해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YMCA, YWCA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성시목(聖市木) 산딸나무 심기 안내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성시화 모델도시로서 거룩한 도시 춘천을 상징하는 가칭 「성시목(聖市木)」으로 〈산딸나무-십자가나무〉를 택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4월 16일 (목) 오전 10시부터
♣ 장소 : 하이마트에서 한방병원쪽 도로변 완충 녹지대
(준비물 : 삽, 목장갑)
♣ 참여방법 : 한 사람이 한 그루 이상 헌수(묘목대 헌금, 식재작업참여)
① 한 그루당 가격 : 20,000원
♣ 문의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033)256-1260, 010-3118-9355

※ 춘천시민학교 개강일시가 사정상 연기(9월예정) 되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

English Worship

영 어 예 배

● 언 제 - 매주 주일 오후 2:30
● 어디서 - 순복음춘천교회 겟세마네 성전
● 연락처 - 010 · 7123 · 8265 최은순 선교사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23)



김 성 호 목사
- 강촌감리교회 담임목사
- 춘천기독교연합회 상임총무



이 희 수 회장
- 춘천YWCA 회장
- 현 도서출판 대희 대표



유 영 호 이사장
- 춘천YMCA 이사장
- 유영호치과의원 원장

| 진행자: 정재호 / 사 진: 김미경

도와야 한다. 이러한 협력관계가 긴밀해지고 심화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깊은 신뢰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교회지도자들은 사회선교를 위한 기독교 기관의 성격을 잘 이해하여 격려해주어야 하며, 사회선교를 감당하는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구조적인 면과 사역적인 면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견제세력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동역자와 일꾼이 되어야 한다.**

*** 이 희 수**

김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교회와 사회선교단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선교에 대해 그리고 소명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YWCA활동이 90년대 들어오면서 위축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선교에 대한 편협한 이해 때문이었다. "교회봉사는 하지 않고 YWCA 봉사만 한다."는 비난이 일면 사회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는 물론이지만 그 못지않게 사회선교와 봉사도 교회와 기독교기관이 연계해 운영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란 생각이 든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서로간의 소명을 인정**할 수 있게 되리라 본다.

춘천은 성시화운동이 최초로 일어난 성시화의 고장이다. 성시화의 비전을 말해 달라.

*** 유 영 호**

YMCA운동은 교회와 사회의 중간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와 자주 교통하여 현안문제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장애우를 섬길 것이다. 또한 청소년 쉼터방을 육성,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해 아기스포츠단과 영아교육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5월중 개관 예정인 '춘천시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여 청소년문화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한다. 아울러 기독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문화포럼 등을 통해 세상을 향한 열린 운동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춘천성시화와 관련해서는 우선 상징적인 관광교회를 제안하고 싶다. **전망이 좋은 아늑한 곳에 5-7명이 들어갈 아름다운 교회(일명 White church)를 세워 명소를 만들면 어떨까!** 결혼식이 끝나면 이곳에 와서 사진도 찍고 둘만의 사랑 깊은 맹세와 기도하는 곳. 또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상담전화를 통하여 신앙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시화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본다.

*** 이 희 수**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면에서 김수환 추기경의 죽음은 교회의 선교적 측면에서 화두를 바꾸는 기회가 되었다. 뭐랄까 성시화운동도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준비가 된 홍보가 필요하다. 철저하게 준비된 각본에 의해서 홍보될 때 지역을 살리는 기독교운동이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한 시적(예, 5년 정도)으로 춘천의 모든 교회가 해외선교에 쏟는 열정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주력한다면** 다시 말해서, 지역을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고 헌신한다면 춘천성시화운동은 현저하게 주목받는 운동으로 새롭게 부각되리라 확신한다.

*** 김 성 호**

YMCA 출신들로 구성된 와이즈맨 클럽의 대표적 멤버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관장들과 함께 주일 아침 조찬기도가 있었다. "다락방"으로 불렸던 이 모임은 성시화운동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었다. 그 당시 YMCA운동은 교회연합운동의 유일한 모임이었다. 현재는 춘천에 다양한 기독교기관이 생기면서 성시화를 위한 YMCA, YWCA의 역할이 다소 소홀해진 점이 있는 것 같다. 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선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 이 희 수**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연합과 협력이 없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 **초창기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다.**

*** 유 영 호**

실무자들을 많이 격려해 드리고 싶다. 말없이 섬기시는 분들로 인해 지금까지 명맥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왔다고 생각한다. 칭찬과 격려를 해드리고 싶다.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자기가 먼저 개척자로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춘천은 정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복 받은 도시이다. **기독교인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자기 개혁을 비롯한 성시화를 이루는데 맡겨진 분량의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

*** 김 성 호**

사회선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주부든, 목사이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선교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있다. 사회선교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영혼구원에 대한 열정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를 세워나가며 세상을 비취는 빛으로서의 사명을 교회와 함께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12:14).**

춘천명성감리교회 교회설립 55주년 기념 예배



곽 영 준 목사

표어 : 도약하는 해!

목표 : 1. 55주년 기념교회 설립(해외)
2. 사진으로 본 55년사 발행
3. 교회지 창간
4. 알파코스 2개 과정 실시
5. 소그룹 활성화

○ 일 시 : 2009년 4월 5일(일) 오후 3시
○ 장 소 : 춘천명성감리교회 대예배실(2층)
○ 주 소 : 춘천시 소양로 2가 93-34번지
(☎ 교회: 254-2183, 선교관: 242-2184)
○ 초청인 : 곽영준 담임목사 외 성도일동

*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진으로 보는 춘천명성교회 55년사' 책자와 간단한 기념품을 드립니다.

담임목사 곽 영 준
(Pastor: KWAK YOUNG-JOON, D.Miss.)

· 원로목사 : 노정관 · 군선교목사 : 조형연
· 원로장로 : 김용환 김시곤
· 장 로 : 박승태 한갑홍 장준홍 이상범 이준열 김용기 박일수
· 찬양대지휘 : 조용원 · 찬양단리더 : 조용원 유인순 곽정근
· 반 주 : 김민아 이윤애 이예솔 곽현아 전희정
· 베라카실내악단 : 이홍우 장혜원 김준기 · 교회사무원 : 유재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하나님과 세상을 탁월하게 섬기는 교회

광진교회는 1997년 5월에 창립되어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이다(춘천시 후평 3동 세경 4차 아파트 앞). 지난 2004년, 이석진 목사와 박은주 목사부부 공동목회의 부임 이래 영적 행복을 체험하는 교회, 건강한 예수가족을 세우는 교회, 21세기 리더를 양육하는 교회,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복음으로 풍성한 생명을 얻는 교회라는 5가지 모토를 통해 놀랍게 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광진교회(이석진 목사)편입니다

이석진 목사

이 목사의 고향은 경북 김천이다. 2남 5녀 중 다섯째로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목사는 어린시절을 주로 농촌에서 보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게 된 그는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경북대 기독학생회관에서 입사하여 졸업 시까지 생활하게 된다. 이곳은 단순한 기숙사의 의미를 떠나 주님이 예비하신 경건훈련의 도장이었다. 40여 명의 기독친우들과 교제하며 기도의 시간과 성경공부를 통해 성숙한 신앙을 배운 이 목사는 졸업할 무렵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한다. 그후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신학수업을 받을 때 지금의 사모 박은주 목사를 만난다. 사모 박 목사는 신학과 기독교교육,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준비된 배필이었다. 지금의 부부 공동목회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박 목사의 전문적 실력과 영성 때문이리라.

하늘씨앗 지역아동센터

춘천동부장로교회에서 8년을 사역하고, 2004년 6월에 광진교회로 부임한 이 목사 부부는 지역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제일 먼저 깨닫게 된다. 당시 교회 옆 빈터는 쓰레기와 폐기물들이 널려 있었다. 거기서 나오는 악취와 함께 티 없이 맑게 자라야할 아이들이 쓰레기장을 놀이터 삼아 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 부부에게 아픈 마음으로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 목사와 광진교회가 그 해를 넘기기 전에 시작한 것이 결식아동 급식이다. 이듬해 2005년 1월에는 기도 가운데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대표로 섬기고 있는 사모 박은주 목사는 **"지역아동센터는 교회가 지역의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주자는 소박한 신앙철학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사역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위해 주님이 맡기신 특별한 사역"**이라고 고백한다. 탁월한 4명의 전문 교사와 여타 강사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을 가르치며, 그 외 서예교실, 중국어교실, 영어문법교실, 원어민 영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초등과정을 졸업하는 6학년을 대상으로 대만으로 졸업 비전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올해로 만 4년을 맞이한 지역아동센터는 30여개의 지역아동센터 중에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해마다 2,000여 만원의 후원금을 국고를 통해 지원받고 있다. 현재는 160여 평의 교회건물과 호반초등학교 인근 50여 평의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장학사업, 선교와 나눔사역

이 목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정신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건물을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목사의 지론이다. 그래서 부임 초기부터 중점을 둔 것이 장학사업이다. 2004년 10월, 이재철 목사(현 백주년기념교회 담임)를 강사로 청빙하여 열린 부흥회에서 모아진 헌금 3백여만 원 전액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온 교우들이 이 목사의 선한 취지에 공감한 터라 이후에 펼쳐진 장학운동은 거의 모든 교우들이 기쁘게 동참하는 운동이 되었다. 1년 2회 장학주일로 지키며, 매년 1천 만원이 넘는 장학금이 답지한다고 한다. 또한 광진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속한 지역공동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이미 한마음이 되어 있다. 부활절 절기헌금은 장애우들을 돕기 위한 재정으로 사용되며, 추수감사절 헌금은 사랑의 쌀 나누기운동에 기탁된다. 아울러 성탄절 감사헌금은 다문화가정을 돕는데 사용된다. 그 외에도 사랑의 연탄나누기, 군부대 사랑의 온차 나누기운동, 이웃초청 경로잔치를 비롯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후핑동의 주민들을 보살피는 일들과 질병, 실직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데 교회 재정의 상당 부분이 드려지고 있다.

또한 국내 선교를 위해 미자립교회와 CBS방송국을 돕고 있으며, 국내 선교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을 돕는 일에도 광진교회는 부지런하다. 요르단의 조민수 선교사를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팡길란 바루 선교사를 돕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다.

더 아름다운 꿈

광진교회는 '2020 하늘씨앗 비전'이라는 아름다운 꿈이 있다. 향후 10년 후에 **가장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고 이끄시는 주님의 교회,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나라의 파트너가 되어 아름답게 동역하는 교회,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지역사회와 더불어 숨 쉬는 교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보다 가시적으로는 100명의 대학생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아기학교, 유아원, 미션스쿨을 설립하고, 100개의 목장교회 소그룹 공동체와 1,000명이 예배하는 대그룹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 꿈을 위해 어떠한 거룩한 대가라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석진 목사와 박은주 목사, 그리고 광진교회 형제자매들이 있기에 하나님나라는 더 위대하고 더 용맹스럽게 확장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회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 010-4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 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척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전 천 일 장로

| 영혼의 양식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김길홍 목사
(순복음하나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롬 1:1-4)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주되심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한 종교가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보증이 됩니다.** 석가모니와 공자와 마호메트는 죽음의 감옥에서 놓여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 값을 치르셨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롬4:25)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속죄함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확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 받았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부활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존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장차 우리의 영과 육을 변화시켜서 그의 나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참된 진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죄와 질병에서 승리하게 되고 죽음과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다 체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사색의 창

춘천은 새로운 두 번째 인생의 고향



왕 흠(바나바교회)

한국에 온지 벌써 2년. 이제 춘천은 저의 고향 중국의 단동과 함께 두 번째 고향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춘천에 보내주신 것은 아주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말을 아주 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싸게 살 수도 없었고 한국 친구를 잘 사귈 수 없어서 언어연습도 많이 못했습니다. 어학교육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집에 가서는 지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시간을 많이 낭비했습니다. 그 당시엔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한국에 와서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주 외롭고 힘들어서 중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면 더 좋았을 것을... 한국에 온 것을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학교육원에 중국선생님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이 효자교회였는데, 저는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울고 우리에겐 아주 이상한, 정말 그런 분위기를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서 맛있는 걸 사주시고 우리가 사는 집에도 방문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실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문화와 한국 사람의 습관과 예절도 알게 되고 한국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은혜를 받고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다시 찾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랑이라면 남자와 여자의 친밀한 관계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춘천에서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효지교회에서 개척분리 된 바나바유학생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교회 담임전도사님과 같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특히,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며 돕고 있습니다. 처음예배 때는 7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30~4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늘 우리에게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욕을 먹은 적이 있고 친구들이 나쁘게 말한 경험도 있습니다. 울고 싶지만 힘들지만 전도사님께서 늘 기도하자고,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하던 친구가 교회에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3월 20~21일에 유학생 캠프를 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올까 의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춘천지역에 유학생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그들을 향해 전하고 싶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춘천유학생들이 복음을 듣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통해 나중에 세계를 향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학생교회에서 만나서 어렵지만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매주일 식사를 대접하는 집사님부부와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갖게 인도해 주신 효자교회 목사님, 성도님께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MP선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선교에 대해 많이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 받도록 저와 바나비 유학생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독지 투고 사색의 창은 독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담는 곳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방법 : hc1260@hanmail.net(기사투고) T.256-1260-1 F.033-257-1260

색동저고리
한복연구소
한복사랑 22년
마음과 정성으로 한복의 멋을 이어나갑니다.
(신부님께는 예쁜 아암을 선물로 드립니다.)
투님을 모시듯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심경 김 기 순 권사(춘일교회)
☎ 243-9019, 011-1788-8406 [약사동 마을금고 옆]

중국어 개인과외
차이나 왕(王)
지립하면서 실속 있는 개인 및 그룹 과외입니다.
원어민 중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어 유지반	중국어를 이미 하시는 분들의 중국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한 교실
제2 외국어반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우기 위한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실
초급중국어반	초·중등학생들을 위한 쉬운 중국어 교실
고급중국어반	기초 중국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중국어 교실
밍밍반	유아들을 위한 중국어 교실

"차이나 왕" 과외는 바나비 유학생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중국선교를 돕고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선택입니다.
문의 전화(TEL) : 010-2420-8865, 010-8609-4050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

(주)춘천커피테마파크 신광철 대표이사(만천감리교회 집사) 편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아름답다.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은 누구라도 젊은이다. 왜냐하면 꿈은 젊음이라는 역동성을 선물로 주기 때문이다.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2만평 대지위에 꿈이 자라는 춘천커피테마파크에서 신광철 집사를 만났다. 신광철 집사는 아비시니카코리아 대표이사이면서 이디오피아 후원회 사무국장이기도 하다. 호탕해 보이는 인상과 시원시원한 말한마디 한마디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푯대)을 향해서(빌3:12) 힘차게 달려가는 꿈을 가진 젊은이의 패기를 느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신광철 집사는 믿음을 가진 첫 세대이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가정이었다. 어머니는 불교신자였고 아버지는 무교이셨다. 신앙의 길로 옮기게 된 배경은 90~94년 러시아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난 한 목사님과의 인연이 계기가 되었다. 전쟁 장애인 1,000명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후에 그 목사님이 춘천을 방문하게 된다. 저녁식사 중 당시 불교신자였던 신 집사의 아내도 함께 자리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내와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10여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마음이 뜨거워진 아내가 먼저 감동을 받고 교회를 출석하게 된다. 불교신자였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아들 부부를 반대하지 않으셨던 어머니도 작년 말부터 교회를 출석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다.

고마운 나라 이디오피아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 도움을 준 고마운 나라라는 사실이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 현재 이디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이런 이디오피아가 한국전 참전 16개국의 일원으로 약 6,037명의 군대를 보내어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전사123명, 부상536명), 그 당시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독립국이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은 아직도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웠던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디오피아에 코리안 빌리지를 형성해 모여 살고 있다. 하지만 멩기스투 공산 독재주의를 겪으면서 한국전에 참전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진 고초를 당해야 했으며 이디오피아 내에서도 최빈곤층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사를 잊고 살기가 일쑤다. 1995년 6월 한국전쟁 45주년 기념 MBC 특집 "잊을 수 없는 전쟁 -잊혀진 용사"라는 다큐가 방영,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후원회가 만들어졌다.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게 된 것이다. 춘천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통해 2만 불의 후원금이 걷혔으며, 그 이후에도 10만 달러의 기금이 모아졌다. 이런 기회로 이디오피아를 방문하여 이 기금을 전달하게 된다. 그때 신광철 집사도 실제로 코리안 빌리지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나서 그들을 도울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한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가장 빈곤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이제 형편이 나아진 한국이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이디오피아 후원회에서 주도한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한국판 새마을운동), 즉 집만 있으면 주택을 리모델링을 해 주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 때문에 목표가 없었던 그들이 집 장만을 위해서 온 가족이 매달려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고 의식의 변화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작은 감사의 실천이 민간외교로 발전

이러한 관심이 이디오피아 국가로부터 냉대 받는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참전용사회관건립과 참전기념탑 건립을 하게 되면서 냉담했던 국가로부터 신뢰와 관심을 얻게 되고, 참전용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게 된다. 실제로 15년간의 지속적인 참전용사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국가의 정책을 바꾸기까지 했다. 참전용사를 위한 연금제도가 생기고 질병-교통비 쿠폰이 제공되기도 한다. 지금도 이디오피아 후원회에 속한 700명의 회원들은 자비로 이디오피아를 방문해서 자신의 재능과 물질과 몸으로 봉사하고 있다. 신광철 사무국장은 "봉사는 자신의 돈과 땀과 물질이 들어가야 참된 봉사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이디오피아 후원회의 봉사정신이다. 또한 단순히 돈이나 물자만을 전달하는 일시적인 원조가 아닌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커피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커피 테마파크는 커피 제조 체험장, 커피 가공공장, 공연장과 커피 박물관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단순히 쇼핑몰에서 수입한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공장을 조성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입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아비시니카 코리아의 사역과 더 큰 비전을 향하여

그럼 어떻게 아비시니카(아비시니카는 이디오피아의 옛 이름, 고대 이디오피아의 명칭 아비시니아에서 생산된 커피라는 뜻이다.) 코리아가 세워졌을까? 아비시니카 코리아는 IMF때 2,000명의 후원자들이 200명으로 줄어들면서 이디오피아 참전용사 후원회의 존폐위기를 맞게 되자 이디오피아 정부차원에서 좋은 커피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하게 된다. 그래서 생겨난 회사가 아비시니카 코리아이다. 이 회사는 이디오피아 정부가 한국과의 우호친선을 위해 엄선한 고급원두를 공정무역을 통해 현지에서 직수입하고 있다. 아비시니카 코리아는 커피 수익사업을 통해 이디오피아의 한국전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생계지원과 현지 의료사업 및 한국전참전용사 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신광철 집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3세계의 가난, 굶주림, 불평등, 차별을 회복하는 사역을 꿈꾸고 있다. 신 집사는 아비시니카 코리아의 여러 사업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섬기길 원한다. 선교사가 가기 어려운 곳에는 프랜차이즈 점포 개설을 통해서 전략적 선교도 가능하다. 이미 점포개설을 통한 선교개척을 준비하는 선교사가 춘천커피테마파크에서 훈련받고 있다. 신광철 집사는 춘천에 새로운 전문 선교전략의 핵심인 "아곱 국제본부"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그를 통해 일하실 춘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빛을 드러내고 있다. 춘천 구봉산에서 사랑받고 있는 야곱 스테이션과 같은 프랜차이즈점이 세계 곳곳에서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을 가지고 춘천커피테마파크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어져가고 있다. 믿음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점포문의: 033)241-1625, 017-230-5874]

[취재 유병준, 진행 정재호, 사진 김미경]







위암 환자(위 수술) 무료
죽 배달합니다!
아무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 주 1회 정도
문 의. 010-9755-1719 강북성결교회

지정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솜 재가복지센터
☎ 상담문의 261-5020 / 010-8220-5036
춘천시 석사동 727-6 청구아파트 상가104호
◆ 대 상 : 6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중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
◆ 서비스내용 :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세면, 용변, 식사준비, 외출, 목욕, 산책, 병원동행, 말벗, 청소, 세탁 등
아름다운 노년을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똑똑한 등산이 내 몸을 살린다(Ⅱ)





「똑똑한 등산이 내 몸을 살린다」는 야마모토 마사요시의 저서(선우섭 옮김, 마운틴 북스, 2008)이다. 그는 운동생리학과 트레이닝 과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이다. 그의 저서는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고 운동 중에 등산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운동 생리학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등산과 건강"에 이어 이번 호에는 **"등산과 피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등산과 피로(1)

운동생리학적 지식이 필요로 하는 것은 '피로하지 않고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A. 오르막길에서는 어떤 피로가 나타날까

등산에 의한 피로하면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오르막길에서 지쳐버리는 일이다. 숙련된 등산가들은 무의식중에도 페이스를 배분하여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피로해지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초보자의 경우에는 언제나 빠르게만 오르려 하기에 쉽게 피로해진다. 천천히 걷도록 지시해도 등산에서 '천천히'라는 의미는 초보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아주 느린 속도를 말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 거의 평지의 1/2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등산을 하다가 피로해지는 것은 피로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하게 등산할 수 있는 길이다.

1) 피로물질 - 젖산

심박수는 보행 속도가 빨라질수록 거의 일직선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근육의 피로물질을 대표하는 젖산의 변화를 보면, 심박수와 달리 보행속도가 75(m/분)때까지는 거의 증가하지 않다가 75m/분 이상으로 보행속도가 증가하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느 일정한 속도로 걸으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걸을 수 있지만 속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증가하면 젖산이 급격하게 축적되어 피로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젖산 농도가 증가하는 시점을 무산소성 작업 역치(AT)라고 부르고 있다. 필자는 분속 80m쯤에 해당된다. 표준 보행속도는 40-50m이다.

2) 마이 페이스 = AT

등산 기술서에는 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이 페이스'로 천천히 걷지 않으면 안 된다고 쓰여 있다. 여기에서 마이 페이스란 용어를 운동생리학적 용어로 바꾸면 젖산이 축적되지 않는 속도, 즉 AT이하의 페이스로 걷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마이 페이스는 AT라 할 수 있다.

3) 마이 페이스의 개인차

여러 사람이 같이 등산을 할 경우에는 빨리 걸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지치는 사람도 있다. 즉 마이 페이스에도 개인차가 있다는 것이다. 우수한 등산가와 장거리 선수는 피로를 견디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피로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피로하지 않으려면 AT의 페이스를 유지하라' 또는 '빨리 달리고 싶으면 트레이닝을 통하여 AT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4) 마이 페이스를 정하는 방법

우수한 등산가는 무의식적으로 걸어도 마이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지만 초보자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 두 가지의 지표를 사용하여 마이 페이스를 정한다.

심박수 : 목표심박수=(220-나이)×0.75

이 식의 의미는 자신의 최고 심박수(220-나이)의 75% 정도가 AT에 해당하며, 이를 목표로 적으면 지치지 않고 장시간 걸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세의 경우에 최고 심박수는 220-50=170회/분이고 따라서 목표 심박수는 이것의 75%인 128회/분이 된다.

B. 내리막길에서는 어떤 피로가 나타날까

내리막길에서의 피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르막길에서 나타나는 피로보다 훨씬 심각하다. 왜냐하면 사고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50%정도의 사고 원인은 넘어짐인데 내려올 때 발생한다.

1)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의 차이

내리막길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심장과 폐가 힘들지 않기 때문이다. 위치 에너지가 필요 없고 운동에너지만 필요하다. 그래서 내리막길에서는 산소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심박수도 별로 올라가지 않고 젖산도 축적되지 않는다.

2) 내리막길에서 나타나는 피로(골격근 손상)

CPK(크레아틴산 분해 효소)는 골격근 세포가 파괴되었을 때에 혈액 속에 나타나는 물질이다. 오르막길을 걸은 후에는 거의 증가하지 않지만 내리막길을 걸은 후에는 크게 증가한다. 오르막길은 호흡·순환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지만 근육계에는 거의 상처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내리막길에는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호흡·순환계에 미치는 부담은 가슴 두근거림, 호흡 곤란 등을 통해 즉시 나타나 '피로감'으로 대뇌가 인식할 수 있지만 근육 중의 작은 세포가 손상되었을 때는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르막길은 힘들고 내리막길은 편하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피로감의 질이 다를 뿐이다.

3) 근육통은 근육이 손상을 입었다는 신호

근육이 손상을 입었다는 신호가 근육통이다. 근육세포가 손상을 입었을 때에 나타나는 염증에 의한 통증이다. 평상시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이나 평지에서 충분한 트레이닝을 한 사람은 등산을 해도 근육통을 일으키지 않는다. 다리 근육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리막길을 걸어도 근육이 거의 손상을 입지 않는다. 그러나 평상시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근육세포가 손상을 입어 근육통에 시달린다.

4) 내리막길에서 급격하게 피로해지는 다리 근력

등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은 대퇴 전면에 있는 근육(대퇴사두근)이다. 산을 오를 때는 대퇴사두근은 길이가 줄어들면서 힘을 발휘하고(A-단축성수축), 내려갈 때는 늘어나면서 힘을 발휘한다(B-신장성수축). 전자는 자주 일어나는 근육의 수축 양식이지만 후자는 드물게 일어나는 수축 양식이기 때문에 근력이 약한 사람이 신장성수축 운동을 하면 근육세포가 손상을 입게 된다. 근육세포가 손상되면 근력도 떨어진다. 단축성수축 운동을 지속할 경우에는 근력은 저하하지만 그 저하율이 작고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다. 그러나 신장성수축 운동을 계속하면 근력 저하율이 크며 며칠이 지나도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않는다. 등산에 적용할 경우, 산에 오르는 것은 단축성수축 운동이며 이때는 근력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한편 내려갈 때는 신장성수축이 반복되기 때문에 근력이 약한 사람은 급격하게 근력이 떨어진다. 근력이 떨어지면 체중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중심을 조금만 잃어버려도 넘어지게 된다. 내리막길에서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다리가 후들거리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5) 내리막길의 착지 충격은 오르막길의 2배이다

6) 내리막길에서 피로를 예방하는 방법

가) 보행기술 - 충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부드럽게 걸어라. 절대 뛰어 내려오지 말라. 보폭을 좁혀서 내려오라.

나) 지팡이 사용, 배낭을 가볍게, 체중을 가볍게, 완만한 내리막길을 선택하라.

[편집위원 고 재 만]

제시뉴욕·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이름다운 멋


결혼예복·숙녀복 전문
패·션·리·더 제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시뉴욕모전점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예 스 비
예스비 브라운상가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
"당신을 20대의
아름다움으로 초대합니다."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3-2001
위치 브라운상가 프리머스 극장 입구

예수 안에서 본 예술



장동호 / 삼손 / Marble of Carrara / 144×147×325Cm / 1992 作

〈작품설명〉

작가가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은 몰락 이후의 무력감과 침통함입니다. 잘린 머리칼과 뽑힌 눈알, 고통에 찬 모습이 우리에게 아픈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작가는 이 고통의 형상 뒤에 비밀스럽게 몇 가지 희망의 징표들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머리칼이 미래에 대한 꿈을, 뚜렷하게 부각시킨 귀가 청종의 자세를, 굳게 다문 입술이 어떤 의지적 결행을 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미완성된, 다시 세워져가는 신전 형태의 좌대를 삼손의 두상 밑에 구축해 놓음으로써 이방신전을 무너뜨림과 함께 맞이한 그의 죽음에 승리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결국 작가는 이 거대한 석상을 통해서 삼손의 실패와 고통, 좌절감과 무력감을 넘어선 승리와 능력과 영광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 이 관 형]

늘 오늘이어도

사는 것 그 자체 실수더미 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에기치 못하고 늘 오늘이어도

마흔의 나이
잃어버린 일상의 고백
나는 미완성

늘 미쁘다 하시는 그 분이어도
선택 조건이 미덥고 어려우니
만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분

모든 것 서툴고 여리어도
모든 것 용서하고 기다리신
흠 없는 생명창조의 모체

사는 것 실수더미 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에기치 못하고 늘 오늘이어도

주(主)님 뜻 안에 있으니
아직도 나는 실수더미 뿐
마흔 살의 순간고백이어도

– 시. 김 장 기 (춘천한길교회 권사)

| 좌충우돌 건강이야기 16

아니 성병이라니!



고 석 연 원장
(가정의학과)

65세 여자 환자가 엉덩이 주변에 작은 물집(소수포)들이 생겼다며 진료를 받으러 왔다. 이 환자의 경우는 성기포진이었는데 일종의 성병이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이어서 성병의 가능성을 설명해 주었는데 환자는 이상한 미소를 지었다. 아마도 집히는 데가 있었던 모양이다. 며칠 후 접수대가 시끌벅적하더니 한 초로의 남자가 다짜고짜 원장을 만나야겠다며 진료실로 불쑥 들어와서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자기가 성병을 옮겼다고 누가 말했냐?"며 소리를 질러댔다. 며칠 전 다녀간 성기포진에 걸린 여자 환자의 남자친구였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그 여자 환자를 불러서 물어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는 여러 명의 성상대자가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 관계를 맺은 남자친구에게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다. 성기포진은 관계를 갖자마자 발병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렇게 여러 명의 성상대자가 있는 경우에는 옮긴 사람을 찾기 어려운데, 이 여자는 괜히 남자친구를 의심했다가 오히려 과거가 들통 나고 말았다.

한번은 젊은 남자가 소변에 농이 섞여 나온다며 병원을 찾아왔다. 물론 이 환자는 배우자 이외의 다른 성상대자가 없었다. 술도 먹지 않는 사람이어서 자기도 모른 채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할 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마도 배우자를 통해 전염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남자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물어왔고, 물론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도 옮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을 해주었다. 그러나 배우자도 같이 치료 받아야 한다고 했다. 환자는 표정이 어두워져서 진료실을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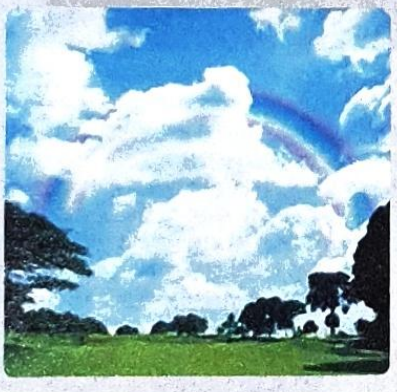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성병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의사들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상황 중에서 후자의 경우를 흔히 접한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여자들의 상당수가 성병에 걸려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성병에 걸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증상이 없다고 해서 성병을 옮기지 않는 것 또한 아니다. 한 번의 실수로 성병에 걸릴 수 있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모르고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옮길 수 있다. 참 무서운 사실이다.

성병은 성행위를 통해서 전염되는 모든 종류의 질병을 말한다. 그래서 종류도 참 다양하다. 사면 발이처럼 가렵기만 한 단순한 병도 있고, 에이즈처럼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도 있다. 물론 치료가 잘 되는 것도 있고, 평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어떤 성병으로 병원을 찾던 의사들은 그 질병의 치료와 함께 매독과 에이즈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다. 왜냐하면 한 번의 성행위로 여러 가지 치명적 질환들이 동시에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병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성병의 여러 가지 면을 실제 진료경험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생각해 봤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도 걸릴 수 있다는 황당함과 내가 아무리 잘해도 걸릴 수 있다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감도 언급된 것 같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어서 성병을 평생 가지고 살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 중 하나이다. 성병은 정말이지 죄와 닮았다. 은밀하고, 다양하며 치명적이다. 개인을 해치고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를 붕괴시킨다.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제를 명령하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몇 달 전에는 콘돔을 사용하고도 성병에 걸린 환자가 병원을 찾아 왔다. 죄가 있는 곳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고민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주는 신앙상담3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어젯밤 가족 모임에서 회중 교훈서(일명 전도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제4장에서 지혜자가 현실 세계의 불공평함을 직시하면서 압제하는 자에게는 파워(기득권)가 있되 압제당하는 자에게는 위로자 마저 없는 현실을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고통당하며 옳은 일을 하는 자들이 오히려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어 압제당하는 빌미가 되고 있고, 이러한 현실 세계의 모순이 마치 결론인양 이대로 끝나는 것이라면 얼마나 허망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인지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꼴을 보고 있노라니, 지혜자는 차라리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낫고 이 둘보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아서 이런 꼴을 보지 않는 자가 낫다고 술회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현실 세계 속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온갖 쾌락을 누리고 있었던 터이어서 솔로몬 그의 영의 고통이 더욱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8절). 양손에 가득 소유한 것보다 차라리 한 손에만 가득한 것이 낫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지혜자는 현실 세계의 불공평과 모순을 인해 고통 받고 괴로워하는 선한 양심과 영이 살아있었기에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양심과 영이 마비되어 있거나 죽어 있어서 현실 세계의 불공평과 모순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희희낙락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지적했듯이, 마지막 날들의 위기의 때가 바로 지금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딤후 3:1). 그런데 소위 기독교인들조차 기복 신앙에 현혹되어 아예 불신자보다 더 무감각하고 무자비하고 무책임하게 육신적 삶을 즐기고 있으니,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목마르지 않도록 성령님으로 사는 위로(요7:37-39,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존하는 생명에 들어가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4:13-14)와 진리(딤전3:15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로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나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라.***-요6:37-40) ***하나님을 찬미하며 인내할 수 있게 해 주시니(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보응의 대가를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조금만 더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요, 오직 믿어 혼의 구원에 이를 자들이니라.***-히10:35-39) 기뻐하라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겠지요.(빌4:4)

가상현실의 속임수가 온 세상을 점령하는 소위 인터넷 시대, 모니터 시대, 영상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들 현실 세계의 모순과 소외당한 대다수의 사람을 잊고 사는 듯합니다. 그래도 감춰진 보석 같은 말씀신자들이 곳곳에 감춰져 있어서, 지혜자의 눈으로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를 직시하며 오는 세계를 위해 묵묵히 대비하는 삶을 영위하고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거짓 대언자(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 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한 것처럼(렘6:14; 8:11) 권면하기보다 성경대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던 지난날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구경거리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약탈당하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은,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앎이라."**(히10:32-33)는 말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불러일으키고(stir up) 싶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편집위원 이 영 규]

예 향

하나님은 아십니다

옛날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남학생 3명이 밤늦게 기숙사 담을 넘어 심야영화를 보고 오다가 그만 지키고 있던 교장선생님에게 불잡히게 되었다. 교장은 엄격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교장은 그 학생들을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너희들은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단호하게 물었다. "예,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너희들은 무단이탈, 월담, 늦은 귀교 등 세 가지 잘못을 했다. 그에 상응한 무거운 벌을 받을 것이다." 한참 꾸중이 이어지는데 학생 중 하나가 물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세요?" 교장은 그 말에 조금 당황한 듯 말했다. "이 녀석들아, 너희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학생들은 "그래요? 그럼 됐어요"라고 외친 어둠속으로 도망쳐 버렸다고 한다. 사람은 서로가 누군지 모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편집위원 최 상 도]

성 시 만 평

이 관 형 · jysince93@hanmail.net



세상 종말, 구원의 능력은?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최영조

편집 위원: 고재만 권기찬 김미경 김춘배 이관형 이영규 유병준 정재호 조영춘 조나단 최상도

〈원고 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시 운교동 174-3 Y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시온교회 특별행사

▶ 4월19일(주일) 최인혁 집사(복음성가 가수) 초청 찬양콘서트 / 오후7시

▶ 4월26일(주일) 임직식 / 오후4시

[임직자 명단] - 장 로 : 김주철 민병남 양정숙 이병용 이양우
- 권 사 : 곽순덕 김명지 김옥분 김정아 김화순 오병순 유정옥 이정호 이귀순 이미숙 이정희 이혜순 임선옥 임종란 정복희
- 안수집사 : 김병훈 이병아 장일영 조성경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 예배: 오전7시30분 / 2부 예배: 오전9시 / 3부 예배: 오전11시 / 찬양예배: 오후2시 / 수요예배: 오후7시30분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11시 / 아동부 예배: 주일 오전9시 / 청소년부모임: 토요일 오후5시 /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1시 /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5시

안녕하세요?
따뜻한 봄바람에 앞 다투어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저희 시온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행사에 소중한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꼭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시온교회
담임목사 오 생 락
033)262-8534, 262-8537 (아이마트 맞은편)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어르신들의 안식처 무지개동산



30대에 무지개동산을 세우고 어르신을 모시겠다고 결심했을 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반대에 부딪쳤다. 그럴 때마다 홀로 기도했던 시간들, 여기저기 손때가 묻어 지어진 건물들과 주변 환경이 세월의 흔적이기도 하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며 꿈꿔왔던 것들이 하나둘씩 이뤄지고 있음에 또한 감사드린다.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1986년 10월, 후평1동에 어르신들의 안식처로 무지개동산을 설립, 1990년 11월 동면 월곡리로 장소를 이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시간들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시인하게 한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도움의 손길과 해결책을 주셨다. 그 어렵고 힘든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난후 지금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장기요양인정 1,2,3등급 어르신들이 자연을 벗 삼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 믿음 안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선생님들의 물리치료와 1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여 주시는 의사선생님의 건강 체크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화요일이면 프로젝터 화면을 통해 영화 및 다큐멘터리 등을 상영하고 있으며, 목요일에는 어르신들의 심신을 위한 게임, 콩트, 동아리회원들의 공연, 종이접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선교와 사랑을 실천하는 구원의 방주

무지개동산은 선교, 복지사회 건설,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3대 사명으로 정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자 힘쓰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중국선교활동은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의 후원으로 장춘, 할빈, 심양, 연변, 운남성까지 교회건축과 현지인 사역자들의 교육에까지 힘쓰고 있으며, 열방을 품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노인성 질환(치매, 뇌병변 등)으로 한정되다 보니 구원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들을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인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할 것이다.

■ 우두동에 행복의집도 개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기쁨과 소망을 주며, 이 사회에 생명의 빛이 되고자 더욱 열심을 낼 것이다. 이를 위해 무지개동산뿐 아니라 우두동에 행복의집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난 3월 12일 날짜로 신고필증을 받아 어르신을 모실 준비를 하였다. 무지개동산과 행복의집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고자 끊임없는 예배와 기도로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지금의 무지개동산이 있기까지 '우리' 라는 울타리로 함께 동고동락하며 무지개동산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의지와 힘이 되어주시며 발자취를 남기신 어르신들과 직원들,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선후배 목사님과 후원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무지개동산 이은준 목사

[춘천시 동면 월곡리 159번지, ☎ 033)241-7660, www.rainbowhill.co.kr]

【춘천성시화 리그 전적표】 2009. 3. 23현재

교회	강촌	금산	동부	삼천동	석사	소양	시온	온누리	제일	중앙	지내리	평화	효자	경기			득점	실점	득실	점수	순위
														승	무	패					
강촌													2:1	1	0	0	1	2	3	-1	0	10
금산									3:0	1:2		0:2		3	0	0	3	4	13	-9	0	12
동부											3:2			1	1	0	0	3	2	1	3	7
삼천동							0:3		1:4	1:5				3	0	0	3	2	12	-11	0	13
석사						4:3		5:2						2	2	0	0	9	5	4	6	4
소양					3:4		2:2		0:1					3	0	1	2	5	7	-2	1	9
시온				3:0		2:2		3:0						3	2	1	0	8	2	6	7	2
온누리					2:5		0:3							2	0	0	2	2	8	-6	0	11
제일		0:3		4:1		1:0								3	3	0	0	14	4	10	9	1
중앙		2:1		5:1								2:2		3	2	1	0	9	4	5	7	3
지내리			2:3										3:2	2	1	0	1	5	5	0	3	8
평화		2:0								2:2			1:1	3	1	2	0	5	3	2	5	5
효자	3:2										2:3	1:1		3	1	1	1	6	6	0	4	6

4월 리그 일정표

구장	시간	4월 6일	4월 13일	4월 20일	4월 27일
A	20-21	강촌:온누리	중앙:제일	금산:석사	지내리:소양
	21-22	금산:시온	동부:삼천동	제일:효자	평화:석사
B	20-21	동부:소양	평화:시온	지내리:온누리	강촌:삼천동
	21-22	삼천동:석사	강촌:소양	중앙:시온	금산:동부

▶ 춘천성시화리그 교회 대항 축구대회

- 기간 : 2009. 3. 2 – 7. 27(22주간) ※매주 월요일 20시 – 23시
- 장소 : 공지천 인조축구장(A,B면) 진행 : 13개팀 풀리그 (22주/78경기)
- 주최 : 춘천시 교회축구연합회

Dreaming Mission Language Training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어학원 (기본 1단계 12기)

'정말 획기적으로 쉽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혼련 수료자들의 권유없는 입소문과 추천이 입증을 하고 있다'

"서울에서 매일 춘천까지 와서 훈련받은 친구 소개로 알았어요. 춘천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현직 중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초등학생 자기 자녀에게, 중등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적극 추천하는 곳이다.'

'[생생정보]로 유명한 공개설명회 참석자들이 거의 100% 등록 했습니다!'

'중 · 고생과 중학 예비생들에게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이해'가 아닌, 특청적이고 획기적인 미라클식 방법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해야만 공짜로 영어(문법 독해 회화)까지 됩니다

미라클 체험수기

"현인이가 초등 학교를 졸업 했을 때 평창에서 춘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제 중학교에 올리가는 딸의 영어공부 때문에 고민하던 중 미라클훈련을 받은 지인을통해 미라클을 소개 받게 되었지요. 다른 아이들은 초등 학교 때부터 영어학원의 과외를 했다는데 우리 아이는시골에서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기에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2개월인지나면 중학교입학인데 영어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공개설명을 듣는 중 바로 저 방법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그리고 선택이 적중했구요. 학원이나 과외를전혀 받지 않은 아이기때문을 훈련을딱 3개월 받고 나서 영어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더라구요. 따라올수로하니 학교영어뿐 아니라영어가 쉽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 방법에 대해 더욱 확신하더라구요. 물론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영어 시교육은 받지를 않았어요.지금도 영어는 교과서의 문장이 아닌 곳에서 문제가나와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반에서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요.영어 때문에여기 저기웃거리거나시행착오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곧 바로 훈련을 받게 돼서 너무나감사해요."

- 남이중3년김현인 엄마 -

"영어유치원 때부터영어를 시작해 영어과외를 꾸준히 한 만지는영어를 어려워했고 "영"이라는 말만 나와도 몸서리칠 정도로 영어를 싫어했는데 이번 영어를 너무 좋아해서 영어책만 불러고 해요.그리고 훈련 첨날이들러주시는 목사님의 유익한 말씀들을 통해 살의 모든 자세가 좋아지고 꿈을 가지고공부를 해요.다른 성적도 이주 많이 올랐어요." - 박민지봄내 초교 6년 엄마 -

"교과서만 가우 이해할 정도의영어실력이었던 내가 자금 친문학 관련 원서를 이렇지 없게 볼 수 있는 영어실력이 된 것은 중3 때 미라클훈련을 통해 영어의 근본 원리를 습득한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 황승원서울대학교리과 1년,2009년 '대한민국인재상' 대통령표창 수상) -

1. 개강일시 : 2009년 5월 18일(월) 오후 6시30분(시간엄수)
2. 기 간 : 5월 18일(월) ~ 6월 12일(화)
   (매주 월,화목,금 6:40 ~ 10:10P.M specially training)
3. 교재 : 'Interchange(intro)' -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
4. 정 원 : 소 :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 어학원 (교통편 : 키를 22번버스)
5. 본 훈련소는 :
   ① 초5,6년,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등 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완전해방 · 공과 미전을 심어준다.
   ② 영어의 근본 핵심을 통해서 훈련시키므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실력 전반(리스닝, 발음, 문법, 빠른독해)에 대해 완벽히 핵심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예비중학생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잃은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③ 영어 / 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최단 기간에 영어 / 회화를 정복하고 싶은분

무 / 개영태으로 영어가 너무 힘든 분을 살려서 정력하게 합니다. 정확 새로운 개념의 획기적인 영어 부담 어학원

6. 훈련등록마감 : 4월 29일(수)까지 선착순 마감(조기마감을 주의 하세요). (☎262-9105(구원영어), 264-0691, 010-3510-0891,
7. 공개설명회 및 체험시례일표 : 1차(4월 16일(토)) / 2차4월 25일(토) 오후5시 ~ 6시30분 * 시간엄수 요망

** 훈련생 자격 : ① 기독교 신앙인 또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열린 마음의 소유자. ② 본 훈련원 수료자의 추천을 받은 자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2차의 공개설명회 중 1회를 참석한 자.(학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22>

브루스 올마이티 (Bruce Almighty)



이번에 소개하는 영화는 지난달 기독영화로 이미 상영하게 된 이례적인 작품이 되었다. 스펙터클 대작 영화들의 러닝타임이 두 시간이 훌쩍 넘어 선정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미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대략적인 줄거리와 상세한 배경을 보태드리고자 한다.

이 영화는 지난해 소개한 노아의 현대판 코믹물 〈에반 올마이티〉의 전편이다. 그러니까 〈브루스 올마이티〉의 후속작이 바로 〈에반 올마이티〉이다. 에반이 바로 이 영화에서 브루스와 다투는 앵커였던 것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은 짐 캐리라는 미국의 걸출한 배우는 천의 얼굴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그를 수퍼 코미디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양한 표정과 연기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덤 앤 더머〉, 〈에이스 벤추라〉, 〈마스크〉, 〈트루먼 쇼〉 등 많은 흥행작에 출연하여 널리 알려진 배우이다.

방송인 브루스가 라이벌 에반에게 밀려나고 갖가지 사고를 만나며 애인에게까지 결별통보를 받는 등 극한 중에 신에게 불만을 품고 항변하다가 결국 신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신의 능력을 한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제안을 받는데 그는 이 능력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까? 이 영화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신 앞에서의 인간의 한계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일깨워준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인간으로서의 참을성의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희화화했으며 인간이 바라는 대로 뭐든 이룰 수 있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그래서 얼마나 겸허하고 순전해야 하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역시 톰 새디악이 메가폰을 잡고 미국의 유명한 인기 드라마 〈프렌즈〉의 히로인 제니퍼 애니스턴이 브루스의 애인으로 나오며, 신을 연기한 명배우 모건 프리먼도 에반 올마이티 전 작품인 이 영화에서부터 출연한다.

경건하고 심각한 분위기가 아닌 황당하고 가벼운 코믹이지만 성경적인 근본 물음에 유쾌한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하나로는 충분할 것이다. 블록버스터급 판타지 코믹이라는 장르에 속하는 이 영화는 코믹물로서는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다고 한다. 다소 보기 불편한 영화포스터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서 아담의 창조를 패러디한 것임을 알 사람은 알 것이다.

〈2003년作, 상영시간 100분. 12세 이상 관람가〉

[편집위원 김 춘 배]

※ 매월 둘째주 목요일 저녁 7:30 늘사랑교회에서 성시신문에서 소개한 영화를 상영합니다.







현 시국을 바로보는 눈!

[사진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수질오염총량제 / 강원남부지역 가뭄 / 북핵문제해결과 남북화해

1)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일 오염총량제 춘천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 5월에는 총량제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는 상·하류지역 간 불균형을 고착시킬 뿐 아니라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시책과 지자체간의 원활한 이해와 조정이 있기를 기도하자.

2)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강원남부의 겨울 가뭄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며 제한급수가 시작되면서 시간에 맞춰 물을 받아놓고 쓰는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가뭄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최근 남북관계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작금의 경제위기와 함께 3-4월 안보위기설까지 겹치고 있다. 북한이 광명성 2호라는 인공위성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나 일본, 미국은 군사용미사일이라고 주장하며, 인공위성이라 할지라도 유엔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화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① 수질오염총량제


② 강원남부지역 가뭄



③ 개성공단 차단


④ 한미 연합 훈련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 협 172242-51-085114
외환은행 04073-12-009998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시화를 위한 3천후원자 모집일
1구좌 개인 2천원 단체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3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강북성결교회
거성교회	광영교회
나눔교회	늘사랑교회
동신교회	사랑교회
새춘천교회	세인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나교회
예담교회	예수촌교회
온누리교회	주영광교회
주향교회	춘천광영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춘천동부교회
춘천영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와이신협	춘천일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평화실로암교회	한빛교회
국민일보 춘천지사	기독무용선교회
영광한의원	세시뉴욕
천일현수막	통복(2)자정기오정기관

강선희	강옥자	강진욱	강태랑
고순덕	김관수	김기태	김태숙
김라현	김영숙	김미경	김미경2
김미경3	김민섭	김복심	김성국
김성희	김영관	김연명	김영숙
김영순	김영일	김요섭	김은주
김재홍	김정혜	김종은	김종익
김종찬	김주환	김진삼	김현미
김현배	김현철	김희경	남상구
류재몽	마호숙	민병순	박난영
박동환	박래희	박인관	박정애
박제자	박종근	박필상	박형숙
배진철	변춘자	석지찬	송난의
신성균	심경희	안미애	안현주
양금환	오순자	오흥수	원희정
유갑순	유근창	유명준	유성현
유인혁	유재형	윤성자	윤애자
윤홍묵	이계문	이규현	이내리
이동인	이명순	이우식	이명일
이상돈	이상만	이수향	이순자
이영진	이용규	이원균	이원기
이원영	이윤숙	이정이	이진주
이태경	이학규	이혜인	임재철
임창수	장기남	장기영	장덕례
장선정	장소영	장소희	장요한
장주현	장창순	전영득	정규시
정미경	정은하	정재균	정재현
정주연	정찬복	조건이	조영호
조소현	조은재	조정일	조정자
지경희	차경자	최계화	최명숙
최상호	최영순	최윤용	최예석
최종덕	최춘영	최혜영	한성아
한희현	함종현	허미정	허순영
허연영	허인영	홍순복	홍순신
홍택기	황명진	황은주	황정섭

미라클 체험수기

국민일보 2008년 12월 16일 뉴스(사회면)에서, "4개월의 집중훈련으로 입에서 영어가 술술~술~나오게 만드는 영감사기 춘천에서 요즘 인기다. 최 목사는 토종 영어 교수법 전문가다. 춘천 화천 홍천 원주는 물론 서울과 수도권, 심지어 부산에서도 몰려왔다. 4개월 훈련을 마친 졸업생들은 '중고교 때 잠깐 이런 식으로 배웠다면 영어 고민이 없었을 것'이라는 감탄과 고마움의 글을 남겼다. 미국 대학 경영학 교수로 있다 온 최 목사는 김모(65)씨는 "비행여권에서 영어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고민해왔는데 이곳에 왔다"며 최 목사의 교수법에 놀라워했다." - 국민일보 2008년 12월 16일자 사회면 뉴스에서 -

영어의 눈이 새롭게 열려 ...기존 영어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

저는 "4개월만 하면 영어가 술술 나온다"라며 말씀하시는 아빠의 권유로 미라클 영어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어가 술술~~!' 이것은 저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10년 이상 영어공부를 해도 이 수준인데 4개월 만에 가능할까'의심이 앞섰지만 결국 공개설명회를 참석하고 체험자들의 체험담과영어방법에 대한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겨우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훈련한 지 며칠이 지나자 느낌이 오기 시작하더니 2개월 만에 '이 미라클 방법은 근본적으로 다르구나'하는 것을 온몸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백일을 하나하나씩이 올려서 높고 큰 탑을 완성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백일만 채공하는 것이 아닌 답을 맺는 법과 빠른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므로 입이든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 응용하여 영어를 사용 할 수 있었습니다. 심말 필요한 백일들을 체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무작위의 백을들만 주고 "답은 본인이 알아서 찾는 것입니다" 하고 마는 기존 영어교육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학연수를 준비하기위해 오전에 일주일에두 번 일대일 영어과외를 받았고 지역에는 미라클 영어훈련을 해서 더욱 비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외선생님은 호주에서 전 계셨던 분이라 영어실력은 두말할 필요 없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외선생님의 방법으로는 문장을 달달 외울 수밖에 없었고, 왜 그런 문장을 써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응용으로 응용시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문장을 만드는 것은 전혀 할 수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어의 근본적인 원리를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면서 문장을 이렇게 내시기 때문에 이해만 하면 문장을 힘들게 외울 필요가 없이 스스로 응용하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데에도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지금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상당수의 5, 6학년 중 고생들도 함께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는 다 바른 드릴 내며 영어과외를 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훨씬 효과가 있는 미라클 훈련을 권적으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고지를 보며 설마 하던 일이 정말 체계도 일어났습니다. 물에서 구체적으로 외국인과 얘기하기도 하고 또 훈련 후 집에 돌아오면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서 돌아서 가족끼리 사용도 해보고 미라클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을 때 한에 살고 있던 외국인이 내게 "내가 진보다 훨씬 더 나의 말을 잘 이해 할 수 있다. 영어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쉽게 영어의 팁을 쌓아 올려 주시는데 팁의 기초인 어휘들을 처음 배우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하면 이 미라클 영어라는 건고한 탑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Miracle (기적)입니다 -고우리(22대 영어영문과1년 휴학생) -

"영어가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줄 이전에 몰랐어요", "영화가 들려요" "몸에서 영어로 심을 뚫어요" "입 가는대 영어가 튀어나와요" "학교 영어가 나무 위워요 친구들이 너 영어 어디서 배웠니고 물어봐요" "이렇게 쉬운 걸 꼭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식한 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등록한 것인데 이제는 포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목해를 하고 속도도 2배 이상 빨라졌어요. 별도로 집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복습하지않아도 그 자리에서습득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정년에서 매일 몸짓5시간 하다고 다니면서 훈련 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고 희여가 없이서 3시간 만이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동안 영어 때문에 엄두도 못 냈던 미국시험을 부딪혀 볼 희망이 생겨서 너무 즐겁다" "수준 있는 완벽한 영어구사 능력은 완벽한 문법과 목해가 전행돼야 한다는 일이 상감이 돼요 문법과 목해 그리고 발음이 너무나 정확하게 습득이 돼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영어라면 지긋지긋했서 1학년 교양과목을 골으로 내 필지에 영어란 없다고 선언했는데 이젠 영어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다 하나라도 다 알려주시고 열정을 다해서는 모습에 감사드린다" "에비 중학생에게도 정말 추천해주고 싶어요"

-초5년에서 50대 주부까지 -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분이라면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 역시 학원을 참 많이 다니었습니다 그게 대학때부터니까 꽤 오랜 시간 영어의 늪에 빠져 있었네요. 공개설명회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마설마 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훈련생을 대리고 어떻게 감화를 하시려나' 하지만 훈련을 하는 날이 하루하루 지나고 영어 교재가 한장 한장 넘어갈 때 마다 선택에 감사드렸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른 훈련생모두가 한목할 한한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창할 같이 들리겠지만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 어렵던 문법도 아주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 해운 문법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이렇게 지렇게 바꿔가며 말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더라구요 놀랍지만 정말이랍니다. 간단한 예문도 몇 번을 반복해서 외우던 저의 수준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미라클 훈련은 정말 미라클기적입니다. 긴 문장도 한문해 보이고 반복해서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술술나온 내 말을에 깨거기 특해지고 일생생활 속의 일을 영어로 말해보는 습관이 생기고.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군요. 영어는 어려운 학문이 아닌 언어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2단계까지만 하고 계신 사정상 미국에 갔는데 너무 아쉬워서 지금 미국에서 오디오강의를 듣고 있어요."

- 기본훈련 단계 까지 수료생이 미국에서 -



머리와 가슴의 차이

김 종 익 목사(춘천 광영장로교회)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춘천지회장

머리와 마음의 거리는 불과 30cm이지만 물론, 키가 크거나 머리가 크신 분은 조금 더 멀어 40cm는 되겠지만요.(하하하)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하다보면 머리로 할 때와 가슴(마음)으로 할 때의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답니다. 머리로 해도 아플 때가 있어요. 가슴으로 해도 아플 때가 있고요. 그런데 머리가 아플 때는 정말 짜증 지대로 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열 받지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마음이 아플 때도 가슴이 미어터지는데 그때는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어 십자가 밑에 한 번 더 엎드리게 되지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다가 왔어요!'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까지 머리로 많이 해왔던 분들은 마음으로 밀어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조심할 것은, 입조심입니다. 머리로 알던 것을 마음으로 내리는 중, 입 벌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으로 내려오다가 새버리거든요. 입 꾹 다물고 하던지, 아니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마음까지 잘 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열왕기하 14:26절에 보면 심한 고난을 받고 누구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를 세우셔서 다윗왕 다음으로 드넓은 영토를 얻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안정을 찾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정치를 펼쳐나간 것이 아님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13: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구원해 주셨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생각하시어 태의 문을 여시사 사무엘을 주셨고, 기도하는 십자가 우편 강도를 생각하시어 예수님은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한 소년이 해변으로 나가더니 아줌마 같은 한 여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저, 아주머니 크리스천이십니까?", "응" / "성경을 매일 읽으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하고 대답합니다. "기도도 매일 하시죠?", "그럼" / "그러면 제가 수영하고 돌아올 동안 제 돈 2,000원을 맡아 주시겠습니까?" 하더랍니다.

우리 예수쟁이들 깊이 생각하여 봅시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기도하오니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도 생각하시어 정치를 잘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넘동포들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저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려요 (교회소식 및 행사내용을 게재해드립니다. 매월 20일까지 연락바랍니다. ☎256-1260)

◆ 어린이전도협회
1) 새소식반 봄학기 주간교사강습회
일시: 3월 3일~5월 19일(매주 화, 총12주) 오전10:00~1:00
장소: 신성감리교회
문의: 253-1443 [http://cafe.daum.net/cefch/]

◆ 예스컴
1) 학원복음화대회 준비모임
일시: 3월 28일, 4월 4일, 11일(토) 오후6시 장소: 중앙성결교회
2) 학원복음화대회
일시: 4월 18일(토) 오후6시 장소: 강원대 실시구시관
문의: 예스컴클럽 club.cyworld.com/yescomelove
박진용 간사010-8901-7004, 033)244-5400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초급 LTC포럼
일시: 3월 31일(화)~4월 1일(수)
2) 전국 캠퍼스 간사 수련회
일시: 4월 13일(월)~15일(수) 장소: 전남 광주
3) 여름수련회 여호수아 기도회
일시: 4월 24일(금) ~ 25일(토)
4) 세계기도의 날 강원도 간사 기도모임
일시: 4월 28일(화) 문의: 252-0542, 254-5776

◆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2) 춘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베드로선교센터5층
대상: 중보기도를 자원하는 그리스도인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rn]

◆ IVF
1) 강원간사연합모임
일시: 4월 1일(수)~2일(목) 장소: 강릉
2) 학사 방문
일시: 4월 20일(월)~23일(목) 문의: 252-5200

◆ JDM
1) 각 대학별 MT
일시: 4월 3일(금) 장소: 대학별 지정된 장소
2) 강원권 간사수련회
일시: 4월 21일(화)~24일(금) 장소: 홍천 대명 콘도
3) 정기 행사 안내
* 회요채플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장소: 춘천그리스도의교회(강대후문 육교시거리)
대상: 직장인과 대학생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이
* 금요기도회 - 매주 금요일 저녁 9:30분
장소: JDM회관 (동보빌리지 후문)
대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
문의: 033)243-6701, 010-2704-3375

◆ GBT성경원역선교회
1) GBT 성경학교
일시: <성경과 선교> 3월 16일~5월 18일 매주 월요일 오후7시
<선 교 일 반> 3월 26일~5월 14일 매주 목요일 오후7시
장소: 에덴교회(CBS방송국 옆 대용빌딩2층)
문의 및 접수 이선희 간사 010-9244-9094
2) 비전기도회
일시: 4월 13일(월) 오후7시 장소: 에덴교회
대상: 누구나 문의: CBT춘천지부 252-3727 chunchun@cbt.or.kr

◆ 인터콥 춘천지부
1) 주님의 새로운 군대, 어린이세대 - 어린이비전스쿨
일시: 4월초 개강예정 주1회, 강의5회, 캠프3회 총8주
담당: 최미혜 간사 010-2968-0880
2) 아늠의 예배, 한국선교부흥의 엔진 - 월드미션
일시: 매월 3째주 월요일(4/20)
장소: 광염교회(에덴꿀 진흥A상가 맞은편)
담당: 송봉춘 간사 010-9125-5894

◆ 데이락(춘천외항한양단) 찬양대 위촉
일시: 4월 6일, 20일(월) 오후7시 장소: 이루어가는교회
문의: 010-9368-9856

◆ 세계태권도선교회 춘천지회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9시~10시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65

◆ 새벽4개 외국선교단 토요일 새벽반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반: 9:30분~11:00, 오후반 3시~4:30분
대상: 아동부(6세~15세), 성인부직장인 · 주부 · 청년 · 사역자 등
장소: 경원대태권도장(우석초교앞) 문의: 263-6022, 017-374-2440

◆ 목회자 특구회원 모집
일시: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공지천 족구장
회비: 무료 문의: 011-361-1955

◆ 춘천기독선교무용단 단원모집
대상: 한국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앞 1.5닭갈비 4층
* 교회 방문 수업 가능
문의: 춘천기독선교무용단 010-3180-5330

◆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 방문요양, 목욕 : 춘천 지역기 센터치 제 1호
*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으로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 문의: 011-366-4972, 255-2191 (춘천제일감리교회 탁광희장로)

◆ 크리스천 기타교실
* 초급반 / 중급반 (새찬송가 645곡 찬양/신주 완성)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8:30 장소: 춘천동성교회
운영: 3개월 코스 (S/A) 6만원, 선교: 일반시민 무료
개강: 2009. 4. 7(화) 문의: 뉴랜드음악선교원 010-6654-8280

◆ 속회팀 연합예배
일시: 4월 12일(주일) 새벽5:00 장소: 호반체육관
주최: 춘천 기독교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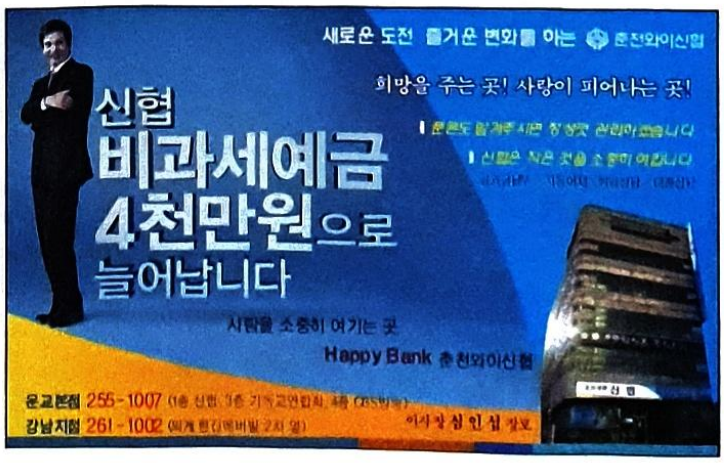
◆ 성탄절 춘천 기독행진 모임 연합집회
주제: 언어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일시: 2009. 4월 4일(토) 오후5시 장소: 춘천 순복음 교회
강사: 히라쿠 타키 모토 복사(일본 신시로교회)
참가교회 회비: 각 회원 교회당 10만원
문의: 이병철 목사 010-6254-3162, 엄기홍목사 011-366-7845

◆ 성시화 연합동 기도회(CCPN)
일시: 4월 3일(금) 오전 11시 장소: 유스아트홀(중앙성가 맞은편)
주제: 경제와 실업문제 극복 문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255-1360
강사: 홍세표 장로(동일제지관리(주)강원지사장)

예수오피아 어린이에게 사랑을
제3회 월드비전 춘천지회장배 주일학교 축구대회
축구를 통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건강한 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며 주일학교 간 친교의 장을 마련하고 어린이 전도의 기회로 활용.
● 일 시 : 4월 25일(토) 오전 09:00~오후 3:20
● 장 소 : 공지천인조잔디구장
● 대 상 : 춘천시 관내 교회 주일학교
● 참가신청 : 4월 13일(월)까지 직접 방문 또는 팩스(254-2209) 접수
● 참가비 : 각 교회당 100,000원
● 마 감 : 2009년 4월 13일(월)
● 주 최 : 월드비전 춘천지회 (문의 : 254-7244)
● 주 관 : 춘천시교회축구연합회



새로운 도전 즐거운 변화를 아는 춘천와이신협
희망을 주는 곳! 사랑이 피어나는 곳!
신협 비과세예금 4천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곳
Happy Bank 춘천와이신협
운교본점 255-1007
강남지점 261-1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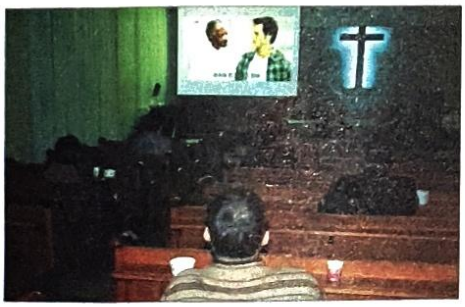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성시화 사무국 예배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국예배가 3월 5일(목) 오전11시에 있었다. 김기만 목사(옥산포교회)는 "예수께 받은 사명"(행 20:24)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사명을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한 사람이 소중하다"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할 일을 향해 달려가는 그 한 사람이 되자"고 말하였다.

■ 브루스 올마이티 영화상영



춘천성시화운동본부에서는 3월 12일(매달 둘째 주 목요일) 오후7시30분 늘사랑교회에서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를 상영하였다. 방송인 브루스(짐 캐리)가 라이벌에게 밀려나고 갖가지 사고 등 극한 중에서 신에게 불만을 품고 항변하다가 결국 신을 만나게 되고 신으로부터 기막힌 제안(1주일 만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것. 대신 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을 받아 벌이는 소동극이다.

■ 춘천 YMCA 이사장 이 · 취임



3월 19일(목) 오후7시 춘천 YMCA 본관에서 열린 이사장 이 · 취임식에서 이칭찬이사장이 이임하고 제28대 신임이사장에 유영호 장로가 취임하였다. 유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칭찬 전임이사장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성장이 더 내실 있는 열매를 맺어서 YMCA가 새로운 100년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 십자가대행진 및 부활절 준비모임



춘천기독교연합회 부활절준비모임이 3월 20일(금) 오후3시 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는 4월 12일(주일) 새벽5시 호반체육관에서 부활절연합예배를 열기로 결의하였다. 춘천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되새기며 부활의 기쁨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3.1운동의 정신계승을 위한 연합예배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장효근목사)는 3.1운동의 정신 계승과 3.1절 90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3월 1일(주일) 오후7시30분 신성교회에서 드렸다. 지용찬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는 이영식 장로(부회장)의 기도, 전은풍 장로(회계)의 성경봉독, 피종진 원로목사(남서울중앙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자'(암 9:11-15)란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피 목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임한다"며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세속화와 사단의 틈을 막아야하며,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장춘근 목사(부총무)의 인도로 특별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복음적 평화통일과 남북한문제를 위하여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가, ▲춘천시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하여 이춘일 목사(베드로순복음교회)가, ▲춘천성시화와 교회들의 연합과 부흥을 위하여 김기만 목사(옥산포교회)가 각각 기도하였다. 이광준 춘천시장의 축사 후 조영춘 목사(총무)의 독립선언문 낭독과 애국가 제창, 김주환 목사(강원도기독교연합회장)의 선도로 만세삼창을 외쳤으며 김창수 목사(신성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성시화를 위한 중보기도회와 영적전쟁



춘천중보기도네트워크(CCPN) 정기기도회가 3월 6일(금) 오전11시 유스아트홈에서 열렸다. "하원복음화의 비전"을 주제로 에스컴의 주관 하에 열린 기도회에서는 춘천IVF대표 유승태 목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명령"(행 18:9)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청소년 · 청년사역이 힘들다며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며 "지역 교회와 캠퍼스 선교단체의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CCPN은 23일(월) 오전10시 성시본부 세미나실에서 예수전도단의 주관으로 '땅밟기 기도'에 대한 세미나 후 4개조로 나눠져서 각각 춘천시청과 도청, 봉의산, 근화동, 소양교 지역의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

■ 교역자 리더십 세미나



춘천교역자연합회(회장:지용찬목사) 세미나가 3월 25일(수) 오전10시 춘천중앙감리교회에서 "지도력 리모델링"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권오서 목사는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비전, 기도, 위기관리능력, 팀웍, 본질회복의 리더십으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좋은 리더십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였다.

■ 성서적 관점으로 바라본 평화



"성서적 관점의 평화사역"이란 주제로 마틴선교사 부부 초청 세미나가 IVF주관으로 3월 25일(수) 오후7시30분 춘천그리스도의교회에서 열렸다. 마틴선교사 부부는 메노나이트 구호, 평화단체인 MCC의 아시아지역 대표를 역임했으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평화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미정부의 베트남 정책에 대해 비판적 컨설팅을 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평화사역의 중요성과 중재자로서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을 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강원도 국가조찬기도회



제9회 강원도 국가조찬기도회(회장:허천장로)가 3월 26일(목) 오전6시30분 춘천중앙감리교회 덕수홀에서 열렸다. 이학규 상임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윤철중 원로목사(중앙성결교회)가 "먼저 할 일"(딤전 2:1~4)이란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할 일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이는 곧 나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국가의 정치 · 경제 · 사회 안정과 민족복음화와 평화통일, 뉴스타트 강원, 성시화모델의 도시-춘천을 위하여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 도기독교연합회 태백에 생수전달



현재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태백지역은 작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했다. 이에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김주환목사)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한 그리스도의 나눔을 실천하고자 '사랑나눔 실천운동'을 전개, 3월 20일(금) 오전10시30분 태백시청에 생수 5톤 트럭 11대와 10kg 쌀 700포대를 전달했다.

취재 · 김 미 경

New Life Festival 2009 소양교회

새생명축제



이 원 호 담임목사

1주 3/8 새생명축제 선포식
2주 3/22 새생명 삼행시대회
3주 3/29 전도대상자 본작성
4주 4/24 전도간증집회
5주 4/26 노가바대회
6주 5/10 전교인체육대회
7주 5/24 새생명축제 초청주일



주일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30	본당
2부 예배	오전 9:30	본당
3부 예배	오전 11:30	본당
젊세대(1)의 밤 예배	오후 7:30	본당
수요 예배	오후 7:30	본당
금요 성령집회	오후 10:00	지하 예배실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지하 예배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소양교회

200-030 춘천 요선동 114

☎ 253-2004~5

사단 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이원호 담임목사님의 제3대 총본부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소양교회 성도일동